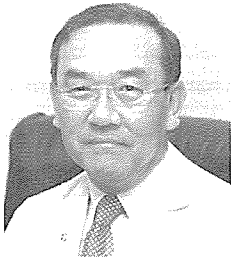


# 창립 반세기 ... 세계적 학회로 발돋움 대한외과학회

1947년 회원 1백여명으로 단출하게 창립된

조선외과학회는 이듬해인 48년 대한외과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로 창립 51돌을 맞은 이 학회는 현재 4천7백68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11개 위원회와 7개 지방학회를 두고 매년 봄·가을로 나눠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90년대 들어 국제학술대회를 본격 유치해 서울서 개최해왔으며 2000년에 열릴 춘계학술대회때는 이식, 혈관외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李景植  
(대한외과학회장)

의술로 치자면 외과 분야 만큼이나 오래된 분야도 드물다. 외과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등 다양한 여러 분과 학문의 뿌리로써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역사도 1백15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양의술로서의 외과 분야가 최초로 소개된 것은 1884년 알렌(Horace N. Allen)박사가, 개화파의 칼에 맞아 생명이 위중해진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閔泳翊)을 구해냈을 때이다. 하지만 서양의술로

서 도입된 외과가 이 땅에서 학문적으로 뿌리내리는 데에는 개화와 민족해방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변동과정과 궤를 같이해 50여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 47년 조선외과학회로 출범

외과학이 학문으로 정착하여 학회를 구성해 출범한 것은 1947년 5월 10일이다. '조선외과학회'로 출범해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던 당시 외과학회는 백인제(白麟濟) 초대회장을 필두로 회원수 1백여명의 단출한 조직이었으며 이듬해 1948년 8월 15일 제2차 총회에서 오늘날의 대한외과학회로 이름을 바꿔 출범하게 된다.

현재 대한외과학회는 4천7백68명의 회원과 기획정보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평의원회, 7개의 지방학회를 둔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각 위원회들은 외과학회의 발전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신설되거나 분화되어 왔는데 1982년에는 의료보험위원회를 신설해 불합리한 의료보수가 타개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또한 외과학회의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1991년에는 국제학술교류 및 회원의 국제학술활동을 후원하는 국제위원회를 신설했다.

1957년에는 국제외과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국제외과학회 지회를 조직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학회의 국내외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학술대회의 규모도 커지고 외국 의 석학들의 초청강연도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인 교류의 폭이 날이 확대되고 있다. 학회의 세부적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들을 살펴보면 기획정보/재무/의료심사/학술/편집/수련/의료보험/섭외홍보/고시/국제/개원의 위원회 등 11개이다.

대한외과학회의 지회로는 부산지방외과학회가 1959년 처음 결성된 이래 1992년 서울지회까지 7개의 지회가 차례로 결성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 학회는 1947년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58년까지는 매년 1회, 59년부터 74년까지는 매년 가을철 학술대회를, 75년 이후는 춘, 추계로 나뉘어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춘계는 25회, 추계는 51회째를 맞고 있다.

80년대 들어 두드러진 세계화·국제화의 경향 속에 외과학회는 1983년 제15차 아시아·태평양 국제범외과학회의 국내 유치를 시작으로 제15차 국제소화기학회 등 90년대 전반에는 외과분야의 국제학술대회를 집중적으로 서울에서 개최했다. 외과학회의

내실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학회는 그 수준이 날로 향상일로에 있다. 오는 2000년 열릴 대한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는 이식, 혈관외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해 외과학의 최신 지식과 연구결과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외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는 정기간행물로서 월간 「외과학회지」와 연 2회의 논문집이 있다. 1958년 이래 현재 56권 6호 통권 455호째를 발간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임상적 논문이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연구실험 논문의 양도 증가하고 논문의 질도 높아져 다 소화해 낼 수 없을 정도로 회원들의 투고가 늘고 있다. 또한 외과학의 연구수준도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 대한외과학회잡지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외과학회의 52년 변천사는 한국에서 서양의 술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47년 까지를 외과학이 혼란 속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본다면 50년대는 전쟁과 함께 급속하게 외과학이 발전한 시기로 전쟁의 와중에서도 군진외과를 통해 혈관, 뇌, 외상, 감염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함으로써 외과 분야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학이 도입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의과대학의 재건과 의료기관이 설립되어 급속한 진전을 이룬 것이 이때이다.

경제개발과 자립의 시대였던 60년대에는 외과전문의 시험제도 및 수련

의제도가 확립되었고 69년 최초의 우리말 외과 교과서인 「외과학 각론」이 출간됐다. 이 시기 외과학회는 6.25 전쟁 이후의 침체를 벗고 활발한 움직임을 펼쳐 학회사상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이사장 중심제의 혁신적인 새 회칙을 마련했으며 초청강연과 회원교류 등을 통한 외국 외과학회와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흉부외과학, 성형외과학 등 신설 분과가 독립하고 정회원 중심체제를 갖췄다.

70년대가 외과의 성장·발전의 시대였다면 80년대는 간이식수술의 성공과 이식수술의 활성화 등 외과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시기였다. 또한 외과학회내 다양한 관심분야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성장해 맥관외과학회, 두경부종양학회, 소아외과학회, 대장항문학회, 이식학회, 내분비외과학회, 유방암학회 등 분과학회의 창립이 잇달아 외과학의 학문적 도약 및 젊은층의 연구욕구를 자극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이면으로는 의료보험의 확대 실시와 함께 개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전공의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외과학회도 발빠르게 의료보험위원회를 구성해 대처에 들어가 보다 나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 98년 11월 창립 50돌 행사

90년대 들어서 외과는 심장, 췌장, 폐이식의 잇단 성공과 함께 암치료에 있어서도 외과의사가 수술 뿐만 아니라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암의 근원적 치유에 접근하는 등 그 영역

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복강경 등을 이용한 수술부위를 적게 썰면서도 환자의 회복이 빠른 최소절개수술(Minimally Invasive Surgical Technique)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등 과거의 외과와는 다른 새로운 영역이 개발되고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전공의들의 진로 결정 문제와 의과대학 수의 증가에 따른 인력수급 과잉문제, 일반외과내 전문분과로의 개원 가능성 등 복잡한 현안들이 증가하고 있어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한 외과학회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얼마남지 않은 새 천년을 바라보는 외과학회의 각오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98년 11월 열린 대한외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외과학회는 그간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외과 전문의제도의 합리적 개선, 전문의 수급, 전공의 교육, 분과 전문의제도, 개방병원제도, 외과분야 의료보험수가 개선방안 등 21세기 외과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과 아이디어들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그동안 대다수의 우리나라 전문의 학회는 의료정책적인 면에는 다소 소홀함으로써 적정하지 못한 의보수가 등으로 인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학문적인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의료환경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데 힘쓸 예정이다. ㉞